

금융 Weekly Insight

글로벌 시관련주 반등 시현 – 시중 자금의 향방은?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8월 첫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79.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1.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금융업종은 은행, 증권, 보험이 각각 1.9%, 2.9%, 3.1% 하락하며 KOSPI (-1.4%) 대비 언더퍼폼. 금요일 IT업종 중심의 지수 급등 속 일부 소외된 영향.
- 금융업종은 비록 주간 기준 언더퍼폼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임으로써 방어주 성격을 재차 확인한 점에 보다 주목 필요.
- 증권과 보험업종의 2Q 실적이 남아 있는 가운데, 증권/보험 모두 개선된 업황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을 고려하면 높아진 배당 매력도 측면에서 관심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금융 Overview

- 은행 – 급격한 증시 변동성 – 자산관리에 대한 니즈 확대에 초점이 필요: 은행 업종은 w-w 1.9% 하락. 지난 주 은행업종은 금요일 증시의 가파른 반등 속에서 일부 소외되며 언더퍼폼을 시현하였으나, 주중 증시 급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며 방어주 성격을 재차 확인. 단기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단기 모멘텀은 약화된 상황. 다만, 지난 주 높은 증시 변동성이 야기한 머니무브와 역머니무브 가능성 논란에 초점 필요. 사실 자금의 방향성은 증시는 물론 금리, 물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가변적인 만큼 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일부 자금은 커버드콜 ETF 등 은행으로의 회귀가 아닌 증시 내에 머물면서 안정적 Yield형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 즉, 이와 같은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인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산관리 역량 여부에 따라 금융사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은행업종의 경우, 비은행 부문 역량을 기반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ROE는 물론 Valuation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증권 – 거래대금 감소 및 ETF 규제 강화 등으로 부진: 증권 업종은 w-w 2.9% 하락하며, KOSPI를 언더퍼폼. 증권사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 돌입.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증시 호황에 힘입은 호실적을 발표하였으나, 시장은 오히려 1) 7월 이후 거래대금 급감 (m-m 약 -35%), 2)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에 따른 ETF 거래 수익, LP 운용 수익 둔화 가능성 등 우려 요소에 집중하는 모습. 이에 더해 주말 간 채권 금리 급등세가 재현되며 채권 운용 부문 손실 우려 또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만, 증권사들의 주가 수준은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을 감안한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으로 판단. PER 4~5배, 배당수익률 6~7%를 상회하는 현재의 Valuation은 (변동성을 동반하는) 천수답 영업을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방을 지지하는 견고한 방어선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
- 보험 – 극심한 증시 변동성에 일부 차익실현 집중: 보험 업종은 w-w 3.1% 하락으로 주간 기준 금융업종 내 가장 부진한 흐름 시현. 특히 최근 한달 새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2위권 손보사들의 차익실현 니즈가 집중. 실손보험 제도 개선 (도수치료 규제 강화) 이후 풍선효과 뉴스 보도 등 부정적 뉴스 흐름 존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인보다는 극심한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방어주 성격이었던 보험사 또한 차익실현 필요성을 피해가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판단. 보험사의 경우 다음주(8.10~14일)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1)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 전환에 따른 손해를 지표 개선 여부, 2) GA 수수료 제도 변화에 따른 사업비율 개선 여부 등이 실적의 관건이 될 것.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7/26) 7월 중 예금으로 자금 풀림 현상 - 22조원 예금으로 -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81.3조원으로 전월대비 41.0조원 감소. 반면, 정기예금 잔액은 971.7조원으로 같은 기간 22.3조원 증가하였고, 개인 정기예금은 5.7조원 증가. -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뒤 은행들의 수신통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3%대로 올라섰고, 새마을금고는 연 4.3%까지 제공 중. - 일부 대기업은 거액 예금 예치 시 연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가운데, 채권과 CP 등으로도 자금이 물리는 중. 일부 증권사 채권 금리는 4% 초 중반에 달하며, SK하이닉스는 최근 채권 투자금액만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	금리 매력도 상승 및 안정성 부각: 시중 자금의 과도한 Risk-on 현상이 일부 완화되며 은행 예금과 채권 등의 투자 수단이 지니고 있는 금리 매력도는 물론 안정성이 부각되며 일부 자금이 풀린 것으로 판단. 다만, 추세의 지속성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금리와 물가가 상승할수록 현재 금리 수준의 매력도는 낮아질 수 있고, 자금이 물릴 수록 요인으로 인해 시중금리 상승 속도는 오히려 더디게 이뤄지며 금리 매력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는 긍정적 요인 - 투자자 인식 환기: 원론적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리스크 환기 및 은행 예금 안정성에 대한 가치 환기는 과도한 자금의 풀림 현상 및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7/26) 증시 급락 속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은 증가 - 여전히 빛두 - 21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3.8조원으로 전월대비 0.5조원 증가하며 월말 기준 역대 최대치인 22년 10월의 43.7조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마이너스 통장은 5월 41.2조원 기록 뒤 증가세이며 소진율은 1월 말 40.9%에서 7월 21일 45.3%까지 상승. - 은행들의 한도 관리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좌는 약정 한도까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증가세를 견인. 실제로 5대 은행의 한도는 981억원 줄었지만 사용액은 증가한 것. - 특히, 코스피 지수 9.99% 하락한 지난 달 23일 마이너스 통장은 당일 및 익일 각각 0.4조원씩 증가.	급락장에서의 투자자 행태는 다양하게 드러나는 상황: 증시의 급락이 머니브의 종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은 아직까지는 성급한 것으로 판단. 투자자들의 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의 증가는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정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 NIM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 증가는 은행의 NIM에는 긍정적 요인.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여타 상품에 비해 높으며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 리스크 관리 중요성 또한 동반 상승: 물론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 고객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것은 물론 엄격한 DSR 규제 하에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손 리스크는 제한적이라 판단. 그러나, 여전히 가계 신용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이러한 국면에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 필요. 이는 신용 대출 특성상 부실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가계의 부실은 역으로 내수 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업 자금 여신의 리스크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7/26) 조정장 피해 파킹, 배당형 ETF로 자금 풀림 현상 - 7월 들어 국내 증시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확대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파킹형과 배당형 ETF로 이동하는 계기를 마련. 실제로 코스피지수 급락 속에서 배당커버드콜 관련 ETF 등은 소폭 상승세를 시현하며 투자수요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	주식에서 다시 예금이 아닌, 증시 내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과거 투자자들의 투자 옵션은 제한적이었던 만큼, 투자 패턴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음. 가령, 주식이 어려울 때는 다시 예금으로 옮기는 것이 대표적 현상. 그러나,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확대 및 증권사, 운용사들의 다양한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ETF 활용 상품 출시 등은 다양한 성격의 투자 상품 출시로 이뤄졌고, 이러한 가운데 ETF라는 vehicle을 통해 접근가능성까지 높아졌음. 결국, 증시로 한 번 이동한 자금이 재차 은행으로 가기보다는 증시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 천수답보다는 보다 세밀한 자산관리 노력이 필요: 결국 시장이 위태해지면 은행 예금으로 다시 소비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일부 성립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돌아오는 자금 흐름은 점차 얕아질 여지가 높다는 점도 고려 필요. 이에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 및 수요 변화에 맞춰 보다 금융그룹 내 계열 금융사들의 협업 및 역량을 조합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자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7/27) 66%대 2% - 퇴직연금 수익률 33배 차이 - 올해 2분기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DC형 계좌 원리금비보장형의 1년 운용 수익률은 34~66%를, 한 두 곳을 제외한 대부분 증권사가 50~60%의 수익률을, 반도체 ETF를 담은 일부 투자자는 4~6월에만 원금의 2~3배에 달하는 수익을 달성. 이는 원리금보장형을 고수한 투자자들의 2~3%대 수익률과 극명히 대비.	FOMO vs 퇴직연금의 원금 보장 수요 - 투자자들의 상품 구성에 있어 보다 복잡해진 셈법: 6월까지만 놓고 보면 분명 퇴직연금 시장의 양극화 및 이에 따른 FOMO 현상은 보다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 반면, 7월 들어 나타난 극심한 시장 변동성은 퇴직연금의 원금 보장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결국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품의 구성에 대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을 것으로 판단. 즉, 일정 상품에 과도한 집중보다는 적정 수준의 수익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행태 또한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 퇴직연금은 장기 적립식 상품 - 머니무브는 지속: 한편, 일각에서는 7월의 주가 조정이 퇴직연금 시장의 머니무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 가능. 하지만,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상대적 리스크는 제한적 판단. 즉, 안정성보다는 일부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의 머니무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금융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환경은 금융사들의 역량 및 전략에 따라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즉, 금융사가 단순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대안을 제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머니무브라는 큰 흐름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7/26) KB국민은행, JP모건 블록체인 결제망 도입, 기업 해외송금에 활용 - KB국민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JP모건의 Kinexys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입 기업 결제 서비스를 8월 출시한다고 공표. - 이를 통해 국내 수출입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 대금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JP모건의 Kinexys는 기관 전용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로 현재까지 누적 거래 규모가 4조 달러 (약 5840조원)를 넘었고, 일평균 거래액은 70억 달러 수준. - 서비스는 국민은행 국내 영업점과 싱가포르 지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10개국으로 미국 달러 송금을 우선 지원 예정.	글로벌 송금의 압도적 규모는 기업금융 -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송금에 집중하는 이유: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반 송금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결국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은 기업금융 관련 시장임. 개인간 송금은 거래별 한도가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달리 그 수요가 제한적임. 반면, 글로벌 주요 교역국이라는 한국의 특성 상 기업금융이 전체 글로벌 송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이는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예금 토큰 등을 이용한 기업금융 송금에 집중하는 이유. 글로벌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 통한 기업대상 송금을 이미 시행 중: JP모건은 물론 Citigroup 등의 대형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예금 토큰을 활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송금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 Citigroup이 자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는 JP모건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제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리고, KB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회를 활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 긍정적으로 평가. 참고로,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예금 토큰은 기업 입장에서 재무제표 상 예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가운데, 송금 시에만 토큰의 형식으로 이체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보다도 재무비율 관리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 송금 수수료가 아닌 고객 유치 및 부수거래 확대가 핵심: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금융의 송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된 목적이 아님.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거래는 기업 입장에서 수수료 절감이라는 당근이 제시될 경우, 해당 거래의 counter party인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러한 시도에 나서는 이유는 변화되는 금융 행태 속에서 시장을 선점, 고객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송금 이외의 부수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을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7/28) 11월부터 3년 연속 저PBR 기업 공개 - 11월부터 3년 연속 PBR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120~220개 기업이 공표 예정.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1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선정 기준을 처음 마련한 것. 금융당국은 업종별 특성 반영 위해 GICS 기준 11개 업종별로 순위를 산정 예정. - 기업가치 제고 노력 기업에는 인센티브 부여, 공표 대상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할 경우 1년간 공표를 유예. 다만, 6년 이상 저PBR 상태 지속 시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에 포함. - 반면, PBR만으로 기업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PBR은 기업의 성장성이나 미래가치보다는 회계상 순자산 기준 산출 지표이기 때문.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및 이행 노력 강화 기대: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저평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이행 강화 기대: GICS 기준 금융업종 내에서 은행, 증권, 보험 중 PBR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은행. 특히, 은행의 경우 일부 증권사나 보험사와 달리, SI가 아닌 FI가 주요 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니즈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음. 그리고, 이는 은행들이 적극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를 발표, 이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판단.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주 환원율의 추가 상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견지하는 것을 확인 가능. 그러나, 일련의 정부 정책은 은행들의 저평가 구간 탈피를 위한 노력의 이행에 있어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7/28) 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 줄줄이 인상 - 주요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대출금리도 올린 것으로 나타남. 주요 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는 5%를 대부분 넘어서기도 하였음. 또한,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 - 시장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리스크 관리 연장선 상에서 차주별 금리 차별화도 나타나기 시작. 일례로, 일부 은행은 고신용자 금리는 인하한 반면 저신용자 금리는 인상.	다만, 실제 가계대출 관리 강화 확인까지는 다소 시간 소요 예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은 이어질 전망. 다만, 이는 기존 상품이 아닌 신규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자는 기존 계약에 따라 신용대출을 이용가능하기 때문. 즉,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수요 증대 불가피: 이러한 기조는 역설적으로 건전성 리스크를 확대 가능. 가계 입장에서 금리 상승과 한도 축소가 유동성에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 결국, 이에 다른 효과가 은행을 넘어 비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비단 은행만이 아닌 금융권 전반에 있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라 판단.
	(7/28) BNK 및 JB금융 - 얼라인파트너스의 합병 제안 거부 - BNK금융과 JB금융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타당성 검토 착수요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검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공시. - 결국 양사는 얼라인파트너스 요구 답변 기한인 8월 7일이 되기도 전에 거부 의사사를 밝힌 것.	이른 시점의 불확실성 해소: 양사의 빠른 대응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이른 시점에 해소한 것으로 판단. 실제로, 해당 Deal은 주가에 따라 주식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 가운데, 양사의 PBR이 크게 벌어진 만큼, 주가에 따라 BNK금융과 JB금융 주주간 BVPS 상 손익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 다만, 양사 모두 실적 및 플러스 알파 창출이 관건: 다만, 결국 양사 모두 Valuation 회복 혹은 Re-rating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 하에서 안정적 실적 개선에 대한 확인은 물론, 지방은행 고유의 플러스 알파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7/29) 롯데손보 공개 매각으로 선회? - 신한지주와 단독 협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던 롯데손보 매각이 결국 공개매각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도. 롯데손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이르면 8월 말 공개매각을 개시 예정. - JKL은 가격을 1조원대로 대폭 낮춰 잡았으나, 신한지주는 지난 4월 발표한 밸류업 2.0을 통해 CET-1 비율 관리를 위해서는 인수 가격이 8천억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한편, JKL과 달리 롯데손보 공동 투자자인 IMM인베스트먼트는 원금 이상 회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도보. - 양사는 공개매각 개시 전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가격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라 보도. 한편, 산업은행도 8월 7일 KDB생명 분입할 진행 예정.	신한지주의 롯데손보 인수 관련 부담 우려 완화: 신한지주의 손보 강화에 대한 니즈는 높지만, 롯데손보 인수가 과연 해답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특히, 이 과정에서 over pay 혹은 이에 따른 CET-1 비율 부담, 그리고 주주환원 영향 등 여러 우려들이 제기. 물론, 신한지주의 밸류업 2.0 발표를 감안하면, 주주들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우려는 제기. 하지만, 금번 보도가 사실일 경우, 재차 신한지주의 주주 중심 경영에 대한 확인 및 신뢰도 제고라는 관점에서 긍정적.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7/30)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총 금융투자상품 투자금 대비 20% 이내로 보유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발표. - 기존·신규 투자자 구분 없이 현금 기준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의무를 부과하며, 레버리지 배율을 금융당국이 긴급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예정. - 이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 수요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총량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 - 7월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 3배 조기 상향 적용이 이미 시행된 상태로, 규제 강도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국면.	레버리지 총량 규제 강화로 브로커리지 거래대금 모멘텀 위축 예상: 개인별 20% 투자한도와 현금 3,000만원 예탁금 요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요를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전망으로,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다만 관건은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이후 시장 변동성 축소 시 개인투자자 증시 유입 재개 가능성 또한 존재. 반도체 등 기업 실적 펀더멘탈은 견고한 상황에서 시장 조치가 증시 안정화로 이어질 지 여부에 대한 관심 높은 상황.
	(7/31) IPO 기관물량 최대 30% 사전배정...코너스톤투자자 11월 도입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13일부터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시행 예정. - 코너스톤투자자는 KOSPI 상장의 경우 기관 배정 물량의 최대 20%, KOSDAQ은 최대 30%를 상장 전 사전 배정받는 대신 6~10개월 보호예수 의무를 부담하며, 참여 요건으로 청약금액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 재산 보유가 요구. -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의 희망 매수 가격·물량을 확인하는 절차로 공모가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 두 제도의 동시 도입으로 IPO 흥행 안정성과 상장 후 가격 변동성 완화가 동시에 기대.	코너스톤 도입, 대형 IB 증권사로의 딜 집중 가속화의 계기: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대규모 기관자금 유치 역량과 신뢰도를 갖춘 상위 증권사 IB에 유리한 구조로, 주관 역량 기반 딜 쏠림 현상의 심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보호예수 조건 부과로 상장 직후 대량 매도에 따른 공모가 하락 리스크가 줄어들어 공모 투자자 신뢰 회복과 IPO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성. 사전수요예측 병행 도입으로 공모가 산정 정확도와 투명성이 제고되며, 대규모 딜에서의 주관사 선별 능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될 전망.
	(7/29) 기업가치 낮은 상장사 11월부터 공표, 증권사 MTS에 '저PBR' 태그 붙는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부터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저PBR 기업으로 반기별 공표하며,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 종목명에 태그 형태로 병행 표시 예정. - 첫 공표 대상은 최대 220개사로 추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는 1년 면제가 부여되나 6년 이상 연속 저PBR 기업은 예외 없이 포함. - 주주가치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을 공개 지목하는 네이밍맨드 세이밍 방식의 밸류업 정책이 본격 시행. 향후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공표 목록 갱신.	저PBR 공표 제도, 기업 주주환원 압박 강화로 증권사 관련 서비스 수요 확대: 저PBR 명단 공개는 해당 기업의 자사주 매입·배당 확대·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를 유인하는 정책 기제로 작동하며, 연내 관련 기업들의 주주환원 발표 집중 가능성. MTS 내 태그 노출은 개인투자자의 저PBR 기업 인지도를 제고하며 관련 기업분석 리포트와 밸류업 컨설팅 수요를 증권사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기대. 단기적으로는 저PBR 해소 기대감에 따른 해당 종목 수급 개선이 거래대금 회복으로 이어져 브로커리지 수익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으로 평가.
보험	(7/31) 미뤄진 경상환자 '8주률' 가시화...보험 적자 숨통 트이나 -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와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상환자 8주률 도입이 2026년 하반기 재추진 국면에 진입. -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2015년 3,576억원에서 최근 1조 6,972억원으로 급증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이 23.0%에서 60.4%로 확대된 상황이 정책 추진의 주요 근거로 작용. - 상반기 손보 업계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1,900억원(6년 만의 적자 전환)에 달하는 가운데, 8주률 시행이 과잉 진료 억제를 통한 구조적 손해를 개선의 계기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	8주률 현실화 시 자동차보험 손해를 구조적 개선 기대, 대형 손보사 수혜 집중 전망: 경상환자 장기 치료의 핵심 채널인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8주률 시행은 손해를 구조 개선에 의미 있는 기여 가능성으로 판단.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대형 손보사로의 수익성 개선 효과 집중이 전망. 다만 의료계·환자단체 반발 등 이해관계 충돌 변수와 정책 조율 지연 가능성이 잔존해 실제 시행 시점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의한 수준으로 평가.
	(7/30) 도수치료 목자 비슷한 비급여 치료 3배로 폭...실손보험 풍선효과 -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1회 43,850원, 주 2회·연 15회 제한) 시행 이후 첫 8영업일 동안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이 전월 동기 대비 206.6% 급증하며 비급여 풍선효과가 조기 현실화. -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증가했고, 건당 금액도 4만 2,257원에서 7만 4,813원으로 77.0% 상승하며 수요 전환과 단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 - 도수치료의 빈자리를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이 대체하는 구조로, 실손보험 규제 효과가 인접 비급여 항목 급증에 의해 상쇄되는 패턴이 재확인.	규모 자체는 제한적이거나, 풍선효과 여부 지속 관찰 필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가 관찰되고 있음. 신장분사치료 자체 건수 및 치료 금액(보험금 부담액)은 도수치료 대비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현재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풍선효과에 기반한 유사 비급여 항목 추가 증가 가능성 존재하기에 경계 필요. 하반기 보험사 별 실손 보험 관련 코멘트 및 추가 제도 개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8-03 (월)	7월 수출입동향 6월 온라인쇼핑동향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 미국 7월 제조업 PMI 확정치 미국 6월 건설지출 유로존 7월 제조업 PMI 확정치 독일 6월 소매판매 독일 7월 제조업 PMI 확정치 일본 7월 제조업 PMI 확정치 중국 7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2026-08-04 (화)	7월 소비자물가동향 26년 13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미국 6월 구인 및 이직(JOLTS) 보고서 미국 6월 공장주문
2026-08-05 (수)	7월 외환보유액	미국 7월 ADP취업자 변동 미국 7월 ISM 비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7월 서비스업·합성 PMI 확정치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유로존 7월 서비스업·합성 PMI 확정치 독일 7월 서비스업·합성 PMI 확정치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일본 7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 중국 레이팅독 서비스업·종합 PMI
2026-08-06 (목)	6월 국제수지(잠정)	미국 2분기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잠정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6월 도매재고지수 유로존 6월 소매판매 독일 6월 공장수주
2026-08-07 (금)		미국 7월 고용동향보고서 미국 6월 소비자신용지수 미국 7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독일 6월 산업생산 영국 7월 할리팩스 주택가격지수 일본 7월 외환보유액 일본 6월 경기동향지수(예비치) 일본 6월 가계지출 중국 7월 외환보유액

자료: 삼성증권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8-04 (화)	카카오페이, 삼성증권 실적 발표	
2026-08-05 (수)	카카오뱅크, KG파이낸셜 실적 발표	
2026-08-06 (목)	KG이니스시스 실적 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264.3	6,595.5						(1.4%)	(20.6%)	103.2%	56.5%
	KRX은행	205.6	1,613.2						(1.9%)	6.5%	34.1%	23.7%
	KRX증권	66.2	1,941.1						(2.9%)	(13.1%)	43.4%	26.9%
	KRX보험	118.5	3,915.4						(3.1%)	0.4%	62.5%	46.3%
	결제 지수**	1.158	n/a						(1.7%)	(4.7%)	(16.9%)	(11.8%)
은행	KB금융	59.8	168,500	55.4	1.0	12.1	8.6	19.9	(1.7%)	6.3%	51.9%	35.1%
	신한지주	47.3	100,700	52.9	0.9	10.9	8.1	22.0	(3.5%)	4.5%	48.1%	30.9%
	하나금융지주	34.4	125,400	50.0	0.8	10.9	7.6	15.1	(5.3%)	7.7%	46.8%	33.3%
	기업은행	16.5	20,650	36.0	0.5	8.7	6.3	3.7	(3.3%)	2.0%	6.3%	(1.4%)
	BNK금융지주	4.7	15,170	44.7	0.4	7.7	5.7	2.2	(15.9%)	(12.4%)	4.0%	(4.4%)
	JB금융지주	4.9	26,450	43.2	0.5	9.5	5.1	22.4	(1.7%)	8.0%	14.5%	3.1%
	iM금융지주	2.7	16,950	50.9	0.9	13.1	6.7	5.2	(7.1%)	0.4%	22.2%	9.0%
	카카오뱅크	10.5	22,100	50.0	1.5	8.9	17.1	28.6	0.2%	5.7%	(21.4%)	2.3%
증권	미래에셋증권	19.3	34,550	40.5	2.0	18.2	15.2	72.9	(6.4%)	(20.8%)	81.8%	48.6%
	NH투자증권	10.5	28,500	45.7	1.3	12.6	11.1	19.4	(1.9%)	(3.6%)	41.1%	35.1%
	한국금융지주	11.5	206,500	22.4	1.1	20.0	6.4	23.6	(3.1%)	(9.4%)	44.4%	27.7%
	키움증권	7.7	293,500	22.6	1.6	22.6	7.8	44.7	(1.7%)	(15.5%)	36.2%	1.4%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0.8	124,000	50.0	1.7	22.8	8.2	14.9	0.6%	16.0%	7.1%	9.6%
	삼성화재	28.2	632,000	45.1	1.0	10.1	10.9	12.0	(1.9%)	1.4%	43.5%	27.2%
	삼성생명	62.3	311,500	46.3	0.6	3.7	15.9	17.8	(2.0%)	(19.5%)	147.4%	97.7%
	DB손해보험	10.3	157,000	32.3	1.1	16.6	6.6	9.0	(6.5%)	15.4%	22.7%	19.8%
	한화생명	3.8	4,420	16.4	0.3	5.6	6.3	37.8	(3.7%)	0.9%	27.0%	35.8%
	현대해상	3.3	38,450	11.7	0.5	17.5	3.3	18.3	(4.7%)	11.8%	46.2%	24.8%
결제	카카오페이	5.8	42,600	n/a	n/a	6.9	45.4	180.2	1.7%	3.6%	(33.5%)	(13.2%)
	NHN KCP	0.5	12,170	n/a	n/a	17.9	8.4	28.8	(2.4%)	(8.0%)	(24.5%)	(18.4%)
	KG이니시스	0.3	9,620	n/a	n/a	7.1	4.6	9.9	1.7%	1.1%	(11.3%)	(5.9%)
	KG파이낸셜	0.1	3,900	n/a	n/a	10.3	5.1	12.1	0.8%	(3.2%)	(27.1%)	(17.0%)
	나이스정보통신	0.3	28,150	n/a	n/a	9.1	4.4	39.4	(5.2%)	(4.7%)	14.9%	11.0%

참고: 7/31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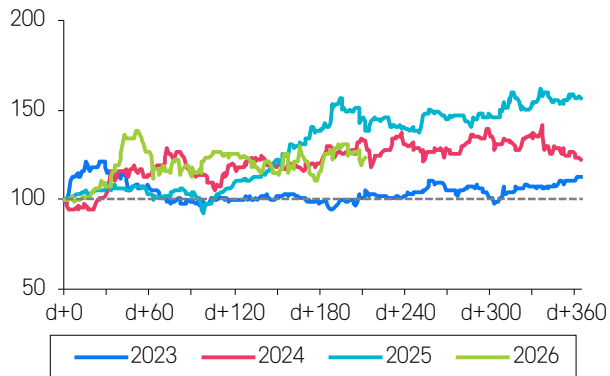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1.4 추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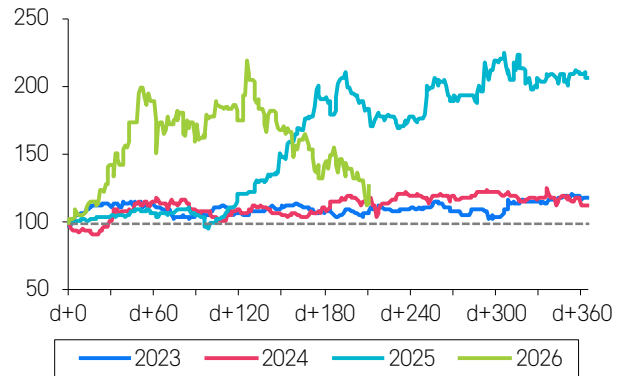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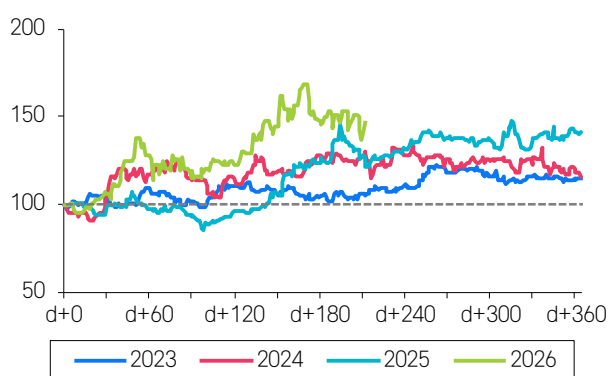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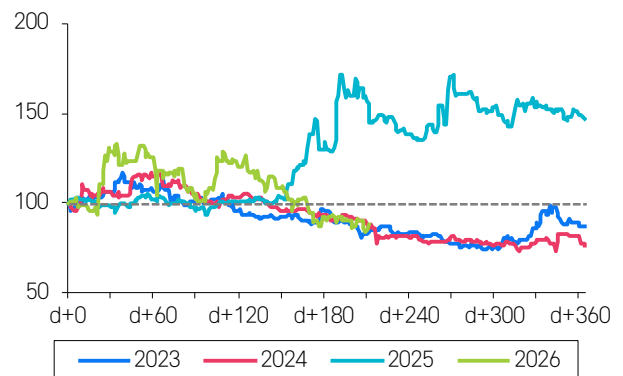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지수화: 202x.01.0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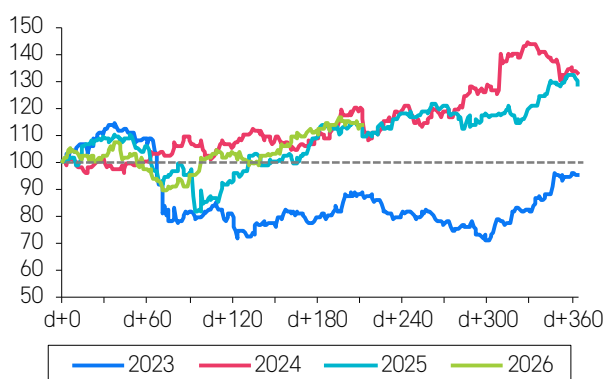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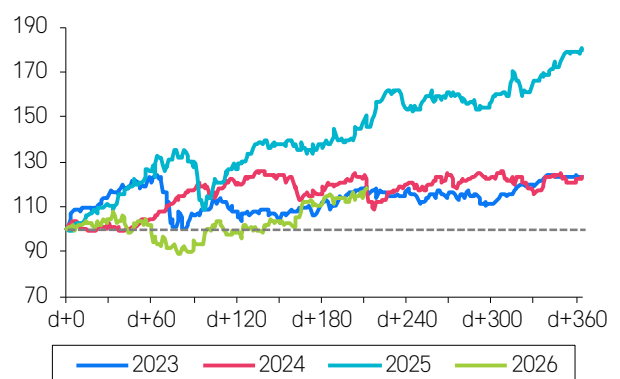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942.6	71.2	2.6	18.8	14.2	23.9	(0.4)	5.2	21.6	9.2
		Bank of America	433.2	98.0	1.5	12.2	13.3	21.8	(0.2)	5.5	35.7	12.6
		Citigroup	225.9	116.5	1.1	9.9	11.9	58.7	0.2	(5.4)	44.2	13.5
		Wells Fargo	261.4	87.8	1.5	13.3	11.9	15.9	0.2	1.1	11.1	(7.2)
		PNC Financial	100.3	72.1	1.7	13.2	13.2	14.0	(0.4)	0.2	34.4	19.7
	유럽	Banco Santander	208.9	64.5	1.7	13.7	11.3	13.2	2.8	(0.8)	71.2	22.3
		Unicredit	142.1	80.3	1.8	17.0	10.8	7.4	1.5	(0.4)	31.2	15.1
		BBVA	155.9	87.7	2.3	19.6	11.6	18.8	5.9	6.4	68.6	20.7
		ING Group	101.0	82.9	1.7	13.6	12.5	14.8	5.1	7.6	56.6	27.7
		Lloyds	90.0	80.5	1.5	13.8	10.2	43.9	1.1	0.0	51.4	16.8
		Barclays	92.7	66.8	1.0	10.8	9.1	20.0	(3.2)	(2.6)	42.6	6.9
	일본	Mitsubishi UFJ FG	268.5	50.1	1.7	12.1	14.5	15.2	(4.9)	7.4	67.9	43.2
		Sumitomo Mitsui FG	165.3	62.0	1.5	11.1	14.3	15.5	(4.8)	2.1	78.2	35.2
		Mizuho FG	126.4	58.3	1.6	12.6	14.0	16.4	(5.6)	1.1	83.4	43.3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402.1	30.3*	0.6	9.0	7.3	2.6	4.5	16.8	25.6	19.4
		China Construction Bank	316.4	29.9*	0.6	9.6	7.0	1.7	4.9	18.4	16.7	19.8
		Agricultural Bank of China	351.0	30.7*	0.7	9.8	7.8	4.1	7.3	19.1	23.5	9.2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103.0	N/A	1.5	5.8	21.5	(23.4)	2.9	0.7	7.7	1.6
		AIG	41.7	86.4	1.0	10.2	10.9	흑전	(0.6)	(1.0)	2.1	(8.1)
		Travelers Insurance	78.1	82.0	2.2	22.0	10.9	25.2	(3.3)	9.4	44.9	29.1
	유럽	Allianz	189.9	80.5	2.6	18.4	14.0	11.3	1.3	3.0	29.5	10.8
		AXA	108.5	59.6*	1.9	17.3	10.7	(7.5)	0.2	2.8	14.3	9.7
		Generali	77.9	57*	2.0	14.3	13.9	14.5	2.5	2.6	38.0	23.0
	일본	Tokio Marine	99.4	48.2*	2.3	15.4	16.2	79.1	(0.0)	7.0	31.2	39.5
		Daiichi Life Insurance	44.0	54.2	1.6	12.8	13.2	21.3	(0.3)	4.1	58.1	47.2
	중국	Ping An Insurance	142.4	35.6*	1.0	14.1	7.1	7.5	3.1	12.7	10.9	(10.0)
		China Life Insurance	149.6	18.3*	1.2	22.0	5.8	(7.3)	2.7	2.8	31.8	6.6
		PICC P&C Insurance	46.5	38.7*	1.2	13.7	8.9	1.8	9.0	15.4	1.1	0.2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12.2	97.3	2.7	19.4	14.6	36.2	(4.0)	(0.3)	43.5	15.9
		Morgan Stanley	330.8	66.1	3.0	19.1	16.3	26.7	(1.9)	(1.6)	51.3	18.5
		Charles Schwab	188.4	79.9	3.7	25.0	16.7	35.5	3.2	8.5	10.2	5.3
		Robinhood	77.9	43.4	7.1	18.0	42.4	(0.3)	(8.8)	(23.2)	(13.4)	(23.5)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27.1	80.7	6.8	35.2	19.1	14.7	3.1	(4.5)	14.3	(9.1)
결제	미국	VISA	683.6	21.4*	20.0	67.7	29.0	23.9	2.9	1.1	7.9	4.4
		MasterCard	502.2	17.9*	60.6	227.5	29.4	18.0	6.2	6.2	2.4	0.4
		PayPal	48.9	6.3*	2.5	23.6	11.4	(7.1)	1.9	25.8	(14.8)	(2.0)
	유럽	Adyen	32.1	0*	4.3	21.2	22.3	16.8	9.5	1.7	(39.5)	(36.2)
핀테크	미국	Block	48.4	0*	2.1	9.8	35.9	7.9	5.3	3.1	9.7	24.8
		Upstart	2.6	0*	3.2	19.5	30.7	98.5	1.9	(21.1)	(65.4)	(37.3)
		Affirm	24.0	0*	5.7	11.7	57.5	728.9	1.8	(15.5)	7.7	(3.9)
	중국	LuFax	1.4	N/A	0.0	N/A	(19.5)	흑전	13.0	11.4	(44.9)	(39.1)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7/31 종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